



안전, 작은 실천이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복합화력본부
안전관리자 강길수

취재 | 임재근 기자

올해로 마흔 두 살의 강길수 안전관리자는 부산에서 태어나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1991년 9월 한국전력에 입사, 남부발전(주) 부산복합화력본부까지 발전분야에서 8년, 발전교육원에서 2년, 부산복합 건설 분야에서 4년 여를 근무하고 2006년부터 이곳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5년여 전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업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지만 독학으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직장상사의 권유로 안전부서에서 일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 그는 사람의 생명과 회사의 재산손실을 막아야 하는 책임감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사례 등을 접하면서 그 동안 자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막연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에 안전관리 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급한 것이 안전에 대한 지식을 채우는 일,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수개월을 보냈다. 머리카락이 전 보다 더 희끗해져 갈 무렵, 타부서 동료들과의 마찰이 잦아졌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명제로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지나간 시간, 그의 마음 한편에는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부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그런 그의 바람과 노력 때문인지 2007년 12월 재난안전분야 산업자원부 장

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부산복합화력본부는 3월이면 무재해 5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어느 여름, 모 업체의 공사 책임자가 공사완료 시점에 그를 찾아와 "고맙습니다. 덕분에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 자신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일부러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지 의아스러웠다. 그 공사책임자는 몇일 전 같은 회사 동료가 다른 사업장에서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이곳에서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다 그 잔소리를 해준 강길수 안전관리자 덕분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직장생활 20여 년,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란 말을 들은 그는 그 동안 힘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고생스러운 일들이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 들었다.

올해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의 해이다. 2008년 1월 한국남부발전(주)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성공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 구축에 초석을 다져 이를 통해 올해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안는 것이 목표이다. 꿈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값진 노력의 결과인 만큼 그의 안전에 대한 열정이 그것이 꿈인 아닌 현실로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